

원희룡 장관, “불법과 타협 없다”

- 부산신항에서 부두운영사·운송업체 관계자와 오찬간담회 개최 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12일차인 12월 5일(월) 오후 12시 20분, 부산신항에 설치한 임시사무실을 찾아 컨테이너 반출입 현황 등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부두운영사·운송업체 관계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개최하였다.
- 부두운영사와 운송업체 관계자들은 “현장에서 정부 소유 화물차 투입의 도움을 많이 받아 **환적화물 운송**은 평시 수준으로 올라왔으며, 수출입 컨테이너는 평상시의 50~60% 수준을 보이고 있다”고 하면서,
 - “**의왕ICD의 물류 차질 해소**가 시급하며, 화물연대를 피해 임시 방편으로 부산신항 내 우회도로를 운영 중이나 도로가 비좁아 **안전 문제** 등이 우려되는 상황”이라며 **현장의 애로사항**을 설명하였다.
- 이에 원 장관은 “지난 11월 29일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의 영향으로 컨테이너 물동량도 호전되고 있어 **다행**”이라고 언급하였다.
 - 아울러, “어제 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늘 말씀주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**다양한 대책**을 마련하였고 **조속히 이행**할 것”이라는 말과 함께, “현장의 목소리를 관계부처와 공유하여 **건의사항**을 **조속 해결**하겠다”고 원 장관은 밝혔다.
 - 마지막으로 원 장관은 “정부가 화물연대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, 이번 기회에 다시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**불법과 타협하지 않을 것**”이라며 **엄정 대응 원칙**을 강조하였다.

2022. 12. 5.

국토교통부 대변인